

“환경 지키고 돈도 벌고 좋아… 재활용품 많이 모아 올게요”

광주 지자체 첫 서구 자원순환가게 개소식 가보니

재활용품 무게 따라 현금·현물 교환… 회원가입하고 통장 개설 페트병 100개에 1000원·폐 건전지 20개는 새 것 2개로 교환 화요일마다 쌍학공원에서…타 지자체도 ‘자원순환’ 캠페인 늘어

“재활용을 하면 돈을 받는다니, 환경도 지키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네요.”

19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 서구 쌍촌동 쌍학공원에서 서구청이 운영하는 자원순환가게 개소식이 열렸다.

자원순환가게는 분리수거 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교환해 주는 가게로, 광주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자원순환가게에는 소식을 듣고 재활용품을 교환하러 온 50여명의 사람이 몰려들었다.

시민들은 먼저 회원가입을 통해 ‘자원순환 통장’을 개설한 뒤, 전자저울을 이용해 가지고 온 재활용품의 무게를 잰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 서구에서 선별한 자원순환관리사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시민들을 안내했다.

자원순환가게에서는 투명 페트병의 경우 용량이 상관없이 개당 10원을 환급해주며, 우유팩 등 종이팩은 1kg당 380원, 알루미늄 캔은 1kg당 550원을 지급한다. 철 캔은 1kg당 100원을 제공하며, 폐건전지는 20개당 새건전지 2개로 교환해준다. 이렇게 모인 재활용품은 각종 시설관리공단 자원회수센터 등지로 보내 새 자원으로 활용한다.

이 중 플라스틱 병뚜껑은 따로 분류해 정촌발전협동조합 ‘플라스틱 정류장’ 부스로 전달됐다. 플라스틱 정류장은 플라스틱 병뚜껑을 수거해 치약 등 튜브짜개, 화분, 열쇠고리 등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공간으로, 이날 부스에는 ‘병뚜껑으로 저렇게 예쁜 제품들이 만들어지느냐’며 신기해하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다.



19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쌍학공원에서 열린 자원순환가게 개소식에서 자원순환관리사들이 시민들로부터 전달받은 재활용품을 분류해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조시구(85)씨는 “평소 집에서 소주병이나 페트병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받는 돈도 쓸쓸하고 환경도 좋아질 것 같아 회원가입까지 했다”며 “더위가 가시면 용돈벌이, 운동이나 할 겸 주변 돌아다니며 재활용품을 모아볼까 한다”고 말했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교환해 주는 금액이 적어 참여를 망설이는 이들도 있었다. 박춘재(59)씨는 “페트병 100개를 모아와야 겨우 1000원을 준다니, 그 많은 병을 모아서 들고 오긴 힘들 것 같다”며 “자원순환가게가 앞으로 매주 열린다고 하니, 집에 페트병이 모이면 한번 가져와 얼마나 벌리는지 봐야겠

다”고 말했다.

서구 자원순환가게는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쌍학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또 서구는 8월 중 화정동, 풍암동 등지에서 자원순환가게 3개소를 추가 운영해 총 4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 동구도 올 하반기 거점형, 이동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서구 뿐 아니라 광주 곳곳에서 최근 자원순환 실천 활동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달부터 ‘마을과 함께하는 기후행동 캠페인’을 시작하고 자원순환 프로젝트에 참여할 12개 마을공동체를 모집했다.

이들은 지난 18일부터 치평동과 용봉동, 능성동 등지에서 자원순환가게를 열고 투명 페트병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다. 수거한 페트병을 압축해 고품질 플라스틱 원사(原絲)를 뽑아내 새 제품을 만들고, 이를 판매해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광주시 북구 ‘용봉마을발전소’는 올 초부터 재활용품을 지역 화폐로 교환해주는 ‘자원순환포인트’를 운영해 왔는데, 현재 정기 이용자가 100여명에 달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iyou@kwangju.co.kr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소통 행보’…전체 고교 방문

100일간 68곳서 학생 격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광주지역 전체 68개 고교를 방문하는 소통행보에 나섰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취임일 기점으로 100일 동안 광주지역 모든 고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최근 대성고, 광주고, 금호중앙고, 금호고를 방문한데 이어 전남고에서 학생을 만나고 교직원들로부터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시교육청에서 퇴근한 뒤 오후 7시부터 학교를 찾고 있다. 학교 업무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다. 주로 수능을 앞둔 고교 3학년 학생들을 격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교직원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현재 교육감이 광주 전체 고교를 방문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소통과 경청 행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학교에서도 교육감에게 다양한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교원들은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높여달라고 요구했으며, 일부 사립학교는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개보수를 건의했다.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교무실 현대화 리모델링, 면학 환경 조성, 개별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교사 연구동아리 지원 확대, 교사 행정업무 분리 등도 요청했다.

이 교육감은 “기본적으로 학교 자치를 강화해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교육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했으면 한다”면서 “광주학생의 실력은 단순한 학력이 아니라, 인성, 디지털 시민의식, 특기적성이 모두 어우러진 창의융합형 인재. 일반계 고교의 경우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여성예술인,미투 재발방지 위한 연대 선언

광주 연극계에서 불거진 ‘미투(#me too)’ 사태(광주일보 6월 30일 7면)와 관련, 광주여성예술인들이 피해자의 예술계 복귀와 재발방지에 힘을 쓸 것을 촉구했다.

연극인과 미술인, 영화감독, 음악가, 화가 등 지역 여성예술인 162명으로 구성된 ‘광주여성예술인연대’는 19일 오전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연극계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용기에 지지와 신뢰를 보낸다”며 “예술계 복귀와 재발방지를 위해 연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단체는 “성폭력을 예술적 자유이자 특권으로 포장해왔던 연극계 권력자를 예술계는 오랫동안

은폐해왔다”며 “내부고발을 적대시하고, 불온하다고 치부하는 도덕적 불감증이 생존자의 미래마저 암흑 속으로 처박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법적 처벌 ▲사회구벌의 변화 ▲개인의 치유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전 과정을 섬세히 살펴야 한다”며 “생존자의 정체성이 ‘피해’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조력하고 그가 일말의 불안과 공포도 없이 떳떳하고 자유롭게, 당당하게, 안전하게 예술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개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다문화가정 진학 ‘사다리 교사’가 끌어줄게”

전남교육청, 밥일꿈 회원 20명, 진학 상담·멘토링 활동

전남도교육청이 유관 기관·단체와 함께 교육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사다리 복원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전남도, (사)밥일꿈과 함께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전남사다리교사단’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밥일꿈 회원인 전남지역 교사 20여명으로

구성된 전남사다리교사단은 전남지역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고른 기회 전형을 통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진학 상담 및 멘토링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전남사다리교사단은 지방에서는 최초로 대입 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현직 교사들로, 다문화가정 학생을 상대로 1대1 맞춤 지도에 나서게 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들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진로체험 활동, 멘토링 등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들도 당당한 전남의 아이들로 행복한 미래를 열게 하는 일이야말로 모두를 포용하는 전남교육의 당연한 과제”라며 “민선4기 전남교육은 앞으로도 다문화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이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농민단체 “정부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광주·전남 농민단체들이 19일 무안군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전남본부 등 8개 농민단체는 “정부는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쌀값을 공공요금으로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쌀값은 왜곡된 시장의 칼바람에 무방비로 노출돼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며 “현재 쌀값은 1년 전에 비해 20% 하락했고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도 쌀값은 2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쌀값 폭락의 원인으로 단기적으로는 시장격리 시기를 늦춘 것과 시장격리 가격을 최저가 판매방식으로 한 것을 꼽았고, 장기적으로는 쌀값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시대에 뒤쳐진 ‘사후약방문식’에 있다고 비판했다.

농민단체들은 그러면서 ▲쌀 6개월분 비상식량(180만) 항시 비축 ▲비상식량 농민 가격 결정권 보장 ▲양곡관리법에 비상식량 매입 의무 내용 명시 ▲농산물 가격 결정권을 포함하는 농민 기본법 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대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